

데스크 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

나주시 과원동 금성관내에는 ‘사마교비’(駟馬橋碑)가 서있다. 조선 효종 때 ‘사마교’ 다리를 고치고 세운 비이다. ‘사마’는 한 채의 수레를 끄는 네 필의 말을 의미한다. ‘사마교’는 나주로 피난 온 고려 8대 왕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갈 때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건넜다 해서 붙여진 다리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다리는 남아 있지 않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사대기길’이라고 부른다.

현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010년, 거란족의 2차 침입이 있었다. 거란족 4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개경을 향하자 현종은 12월 17일 밤 남쪽으로 몽진(蒙進)을 한다. 궁궐을 빠져나가기 이전부터 많은 신료가 현종의 곁을 떠나 몸을 숨겨 버렸다. 경기도 광주와 천안·공주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전라도 1천년’ 도약을 위하여

그나마 따르던 몇몇 신하와 군사들도 도망쳐 버렸다. 현종 일행이 나주에 도착한 때는 이듬해인 1011년 1월 13일이었다. 거란군이 개경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현종은 나주 행궁에서 열흘간 머물렀다.

현종이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주를 최종 피난처로 잡은 까닭은 뭘까? 고려를 건국한 왕건 비(妃)이자 2대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의 고향인 나주는 일찍부터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 1018년에 처음 명명

오는 2018년은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이 되는 해다. 전라도라는 이름이 붙은 때는 1018년으로 고려 현종 9년 때였다. 이때 현종은 지방 통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전국을 5도로 나누었다. 앞서 995년(성종 14년)에 ‘강남도’(江南道·전북 일원)와 ‘해양도’(海陽道·전남 일원)로 구분했던 것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명명했다. 경상도는 1314년(고려 충숙왕 원년), 충청도는 1356년(고려 공민왕 5년), 강원도는 1395년(조선 태조 4년)부터 사용됐다.

조선에 들어서도 전남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1896년 전국 8도에서 13도제로 개편되면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양분됐다. 이어 1946년에 제주도가, 1986년에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각각 분리됐다. 올해는 전남과 전북이 분리된 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마침 전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전북 120주년(2주갑) 특별전으로 ‘전라북도 다시 봄’ 전시를 열고 있다.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광복 후로 시기를 구분해 조선시대 전라도 고지도를 비롯해 대한제국 호적표, 마름계약서, 이토농장 토지대장, 소작료 감정부 등 다양한 근·현대사 자료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1910년 나라가 망한 후 일제가 화유 목적으로 은사금(恩賜金)을 주려고 하자 이를 거절한 뒤 우물에 몸을 던져 순국한 김근배(1847~1910) 선생에 관한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선생은 “굴욕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의(義)를 따르는 게 나으니 깨끗한 우리 집 우물에 인(仁)이 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광주시와 전남도 및 전북도는 지난 10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도 1000년 기념사

업 등 지역현안을 공동 추진하자며 손을 잡았다. 앞으로 3개 시·도는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전라도 천년정사 편찬, 전라 밀레니엄 파크 조성, 정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등 11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전라도 정도 1000년’은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그 세월 동안 전라도는 ‘의향’(義鄕), ‘문향’(文鄕), ‘예향’(藝鄕)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진왜란과 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항쟁 등 역사의 격랑 속에서 전라도민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그러나 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고, 왜곡된 지역 이미지로 차별을 받아야 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이다. 광주와 전남·북 3개 시·도는 ‘전라도 1000년’ 역사와 문화를 저력 삼아 ‘새로운 천년’, 새로운 ‘전라도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song@kwangju.co.kr

社說

특검 수사 국민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국정 농단 관련자들의 ‘모르쇠’ 타령에 따라 땀방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아무 죄가 없다며 강변하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궤변이 이어지면서 민심의 기대는 온통 특검에 쏠리고 있다.

일단 특검은 70일이란 제한적인 시간 동안 살펴봐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과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검찰이 손대지 못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실체와 부의 형성 과정 등도 낱알이 밝혀야 한다.

하지만 국정 농단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가능성이

이 농후하다. 벌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 모의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아닌가.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선상에 섰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이제 민심을 토대로 담대하게 진실을 견인해야 한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특검 수사는 정확한 실제 규명으로 국정 농단의 배경이 된 대한민국 사회의 왜곡된 구조를 견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대기업과 관료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정 농단의 부역 구조도 제거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는 촛불 민심의 명예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일그러진 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승리로 귀결되면 서 그레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미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김영란법 농수축산 피해 두고만 볼 것인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 지 3개월이 되어 간다. 농수축산업 피해 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정부가 설·추석 등 명절에 한해 김영란법 적용의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제 부처의 건의에 따라 명절 등에 한해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3·5·10’ 규정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법 시행 후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유예안의 요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정 기간 선물 5만 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우나 굴비·전복·인삼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한 농수축산물 소비가 다소나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최소한 설·추석 연휴 등 대목에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반기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 농수축산업계는 한발 더 나아가 “유예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물이 전부를 차지하는 음식업이 8조 5천억 원, 농수축산물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 원 등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손실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농수축산물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지만 농축수산물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추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펜클럽

대한민국이 의지할 대상은 결국 국민뿐이다



임명재 약사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은 이제 우리의 자긍심처럼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정치적 집회나 노동자들의 소위 데모에 대한 인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과격한 의사표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의 촛불집회는 하나의 거대하지만 매우 차분한 문화의식과 같은 장엄한 행사 같은 것이었다. 남녀노소가 관광이나 문화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마저 느끼게 하는 정치 집회였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지인의 말에 의하면 그 자리에 서있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웠다고 한다.

그동안 나는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 수준과 같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수준은 곧 국민의 정치의식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왕정 국가가 하더라도 국민의 참여 수준이 높다면 그 또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과 가깝게는 2011년에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시민혁명에서 경험한 것과 같다.

나는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최소한 우리의 정치의식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천일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쿠데타에 의한 정권을 용납하고 각종 비리와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정치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나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행복하게 해주었다.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소중한 촛불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진화하기도 퇴보하기도 하면서 발전해나간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민족이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사라지거나 번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역사에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 영웅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들은 우리들의 조상, 바로 민초였다. 역사의 뒤꺾에서 홀대받으며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을 소유한 조상이었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장군과 함께한 백성들, 독립만세를 외치며 애경들의 총탄 앞에서 당당히 태극기를 흔들던 시민들, 현대사에서 최루탄과 곤봉에 저항했던 학생과 시민들, 그리고 오늘의 촛불들이 우리민족의 영속성과 대한민국 번영의 실질적인 주체였다. 우리들은 자랑스럽고 세계는 부러워할 민족의 정신력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보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부패는 늘 있던 일이라 치더라도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아무리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한 방울의 자존심도 없이 비굴하게 처신하면서 부화뇌동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들 공무원들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잘못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험이었다면, 그리고 올바른 처신을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처럼 많은 국민이 추위에 나서지 않더라도 몇몇 장관과 공무원들에 의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진즉 틀튼이 나고 좌절했을 것이다.

장엄한 촛불과 함께 한 민중의 함성이 쉽게 잊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적 구조 곳곳에 촛불의 빛이 스며들고 함성이 전달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치함과 날카로움을 잃은 언론은 반성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은 정권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추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은 국가와 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선거에서는 부디 신중하고 현명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문화를 누리는 생활법규 ‘저작권’

지만, 알고 보면 저작권은 우리의 일상 한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문화 상품들이 바로 저작물이고 그에 관련된 권리가 저작권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집팬지가 그린 추상화가 1100만원에 팔려 화제가 되었다. 집팬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고가에 팔린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물론 이 그림에는 저작권이 없다.

왜일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남들이 느낄 수 있게 표현되어 있는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집팬지의 그림은 저작물이 아닌 것이다.

저작물의 창작성은 아주 높은 필요는 없으며 다른 것과 구별되는 정도의 독창성이면 족하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읽는 것들, 드라마, 영화, 연극, 음악, 미술작품, 시, 소설, 사진, 캐리커,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이 모두 저작물이다. 광고나 무용의 안무, 건축물 등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일상은 저작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또는 법인)을 저작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다. 많은 사람이 산업재산권인 특허와 저작권을 혼동한다. 두 권리는 보호대상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리의 발생 방식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통해서만 권리가 발생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등록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고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특정한 경우 법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 사보도, 공연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은 다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저지르는 저

작권 침해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리거나 출판물에 쓰는 행위다. 또 최근에는 무료 폰트를 쓰다 그 이용범위를 벗어나서 폰트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 음악을 블로그 등에 올려놓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간단한 내용만으로 저작권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이것만은 기억하자. 어떤 것이든 저작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이용하려 한다면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저작물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연락하면 된다. 무료로, 친절히,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상담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저작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저작권은 교통법규처럼 문화산업의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뺄 수 없는 생활법률이기 때문이다.

기 고



장성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장

2007년의 일이다. 담양의 한 고등학교생이 무심코 저지른 저작권 침해도 형사고소를 당한 뒤 저작권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형사처벌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무리한 행태가 원인이었다.

안타까운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는 가벼운 저작권 침해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고소를 각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도 노력해왔다.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은 여전히 낯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8년 전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성당에 가게 됐다.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아이들은 먼저 세례를 받은 터라 혼자 왕따 신세였다. 바쁜 일상 속에 휴식이 필요한 일요일 오전을 꼬박 성당에서 교리 공부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어찌어찌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냉담자’(쉬는 신자)가 됐다.

얼마 전 대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연말을 겸해 송년 저녁 식사나 하자는 것이었다. 아내의 대모님은 집으로 갈 때 대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연말을 겸해 송년 저녁 식사나 하자

위기의 종교

타 교사에 따르면 천주교의 냉담자가 많은 개신교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22%에 달해 개신교도 신자 감소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신자 감소는 위기를 맞은 종교계의 현실을 말해 준다.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다. 문화선교연구원은 내년 종교계의 이슈로 생존과 갈등을 꼽았다. 경제 위기와 인구 절벽 앞에 종교계도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며 갈등 관리 능력이 시급하다고

가 심해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은 20대

이 높다. 허수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탐구센타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의 냉담자와 같은 개신교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22%에 달해 개신교도 신자 감소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신자 감소는 위기를 맞은 종교계의 현실을 말해 준다.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다. 문화선교연구원은 내년 종교계의 이슈로 생존과 갈등을 꼽았다. 경제 위기와 인구 절벽 앞에 종교계도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며 갈등 관리 능력이 시급하다고

가 심해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은 20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제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